

‘전두환 옹호’ 사과는 했지만...성난 호남민심 수습 역부족

윤석열 광주 방문 평가

5·18단체 등 시민단체 면담 생략

입장문에 정치적 수사만 가득

대학생 시절에는 모의재판서

전두환에 무기징역 선고하기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0일 광주를 찾아 자신의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 사과' 논란에 대해 사과했지만, 성난 호남 민심을 수습하기에는 부족했다는 평가다.

이날 광주를 찾은 윤 후보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사과와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5·18 정신을 아우르면서 호남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이를 반영하듯, 윤 후보의 광주 일정도 인권변호사이자 70·80년대 민주세력의 대부였던 고(故) 홍남순 변호사 생가 방문과 5·18 자유공원,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 등으로 짜였다.

하지만 윤 후보의 이날 행보는 현장 방문에 그쳤고,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의 사과 대상인 오월단체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면담 등은 없었다. 여기에 국립 5·18 묘지 앞에서 내놓은 윤 후보의 입장문은 정치적인 수사와 간단한 사과 등만 담기면서 오월단체와 시민사회 단체들의 반발을 더욱 키웠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앞서 윤 후보의 진정 한 사과의 전제로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당내 5·18 왜곡·뺨뻐 인사 청산 ▲전두환 등 국립묘지 안장 배제를 위한 국가장법 개정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사법적 단죄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윤 후보의 메시지와 발언에는 이 같은 전제 조건이 하나도 담기지 않으면서 '진정성'이 아닌 '거짓 참배' '가짜 사과'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앞서 윤 후보가 이날 첫 방문지로 전남 화순에 있는 고(故) 홍남순 변호사의 생가를 방문해 유족, 중

친화와 차담을 나눴지만 이마저도 사단법인 대인 홍남순 변호사 기념사업회가 윤 후보의 생가 방문을 강하게 비판했다.

기념사업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홍 변호사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무고하게 구금을 당해 고초를 겪었다"면서 "윤 후보는 최근 전두환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고 어떠한 석고대죄도 없이 광주를 방문하는 행위는 경거망동을 넘어 후안무치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고인의 시대정신과 송고한 유훈을 정략적 정치 행보로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가 이날 광주 방문을 통해 강한 사과의 메시지를 내놓지 못한 배경에는 당내 역학적 관계와 현재 자신의 지지세인 보수 진영 표심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윤 후보가 서울대 재학 당시 12·12모의재판에서 판사역할을 하면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민주화정 정신이 정치인이 되면서 변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윤 후보의 광주 방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반발도 거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후보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사과한데 대해 "광주 출장 정치쇼", "표 계산용 이벤트"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두환이 공수부대로 광주를 강제 진압했다면, 윤석열은 억지 사과로 광주시민을 강제 위무하려 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정의당도 이날 윤 후보의 광주 방문에 대해 "억지 사과, 일방통행 사과에 불과했다"라고 비판했다. 오현주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사과의 마음을 담아 대통령 후보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과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구체적 실천과 약속이 병행돼야 한다"라며 "5·18정신 훼손에 한 재발 방지 대책 등 국민의힘 차원의 책임 있는 약속은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찬성 여론·지지율 정체 감안 '대장동 리스크 털기' 정면돌파

이재명 대장동 특검 조건부 수용

국힘 불수용시 프레임 전환 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 및 엄정한 책임추궁 필요성을 들어 조건부 특검 수용 카드를 꺼내들었다. '검찰 수사 미진사'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과거 부실 수사 의혹 표방'이라는 전제를 달은 것이긴 하지만, 그동안 야당의 특검 요구에 "시간끌기"라고 명확히 반대하면서 검찰·경찰의 철저한 수사에 방점을 뒀던 것에 비하면 입장 변화로 보여진다.

이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장동 특검 문제와 관련, 미리 준비한 모두발언 메시지를 통해 "검찰의 수사를 일단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니 지켜보되 미진한 점,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고 그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이 후보가 특검 수용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특검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시간을 끌어 정치공세를 하려는 것"이라면서 일축한 바 있다.

이 후보의 조건부 특검 수용 가능성 시사는 일단 우선 '대장동 특검'에 대한 높은 찬성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측면을 부각하고 있으나 여론조사에서는 대체로 당시 성남 시장이었던 이 후보가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같은 이유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특검에 대한 찬성 의견도 60% 안팎을 나타내고 있다. 윤 후보가 컨벤션 효과 등으로 지지율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지지율 정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윤 후보 등 국민의힘 관련 의혹까지 패키지로 묶는 역공을 시도하면서 대장동 리스크

털기 위한 정면돌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특검으로 가도 '꼴릴 게 없다'는 자신감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는 실제 날 토론회에서도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직원을 잘못 관리했다, 100% 유능하지 못했다"는 지적에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느냐"면서 반문하기도 했다.

이 후보가 이날 윤 후보가 거론한 이른바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동시 특검을 거부한 것도 같은 논리다. 그는 "윤 후보는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문제가 많다. 여러분 알지 않느냐"라면서 "현재 (잘못한 점수가) 0대 10인데 (동시 특검으로) 왜 이걸 1대1로 만들려고 하느냐"고 말했다.

나아가 이 후보의 발언에는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조건부 특검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계산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 경우 야당이 특검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국민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 의미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문 대통령, 21일 2년만에 '국민과의 대화'

국민 300명 온·오프라인 참여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오후 '국민들과의 대화'에 나선다. 문 대통령이 생방송에 나와 정책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지난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 후 2년 만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지친 민심을 고려, 대국민 소통의 장을 통해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임기 말 국정 운영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21일 오후 7시 10분부터 100분간 KBS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2021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관련한 방역, 민생경제를 주제로 국민과 진솔한 대화를 나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행사를 두고 지난해 초부터 계속

된 코로나로 국민이 많이 지친 만큼 대국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의 성공을 위한 국민 의견을 구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번 '2021 국민과의 대화'는 정세진 KBS 아나운서가 메인 MC를, 김홍준 KBS 기자가 보조 MC를 맡아 공개회의인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된다. KBS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할 국민 3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 중 200여 명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국민으로 구성해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백신 미접종자 등 나머지 100여 명은 화상으로 참여한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에는 문 대통령 외에 방역 및 민생경제 분야 장관도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다. 한편, KBS는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에게 할 질문을 접수 받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대선 다자대결 윤석열 44.4%·이재명 34.6% 리얼미터 조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8~9일 전국 18세 이상 10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후보의 지지율은 44.4%로 이 후보(34.6%)를 9.8%

포인트 차이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각각 5.4%, 2.8%였다. '새로운미래' 창당을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1.5%로 집계됐다. 가장 양자 대결에서는 윤 후보 50.0%, 이 후보 37.0%를 각각 기록해 격차(13%포인트)가 더 컸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9.9%로 가장 높고, 더불어민주당(29.4%), 국민의당(10.8%) 순이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처리의무자(지자체 및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 배출자는

한국환경공단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정기신고: 매년 3월 30일 까지
- 수시신고: 폐기물 배출 종료 후 30일 이내

※ 신고방법 등 세부사항은 폐기물처분부담금 누리집(홈페이지)을 참조해주세요. (www.budamgum.or.kr)

폐기물처분부담금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062-949-0744, 0746

코로나19 개인 위생수칙

- 30초 이상 손씻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기침 시 옷소매로, 실내 환기는 주기적으로
- 유증상 또는 의뢰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제도 동영상 매뉴얼